우리는 이방인-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 최근 한국소설 속의 이방인–이웃들 –

류보선(군산대)

〈목 차〉

1. 지구시대의 도래와 이방인–이웃의 출현
2. 국경을 여러 번 건넌 존재들 혹은 지구시대의 일말의 희망
3. 반성과 모성의 시간 ; 무조건적인 환대에 이르는 두 길
4. 이방인–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와 그 의미

1. 지구시대의 도래와 이방인–이웃의 출현

바야흐로 지구시대다. 아마도 신자유주의 때문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덕분에 급속하게 완성된 오늘날의 지구시대적 상황은 그러나 우리가 꿈꾸던 '꿈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지구 전체는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파국을 '저 만치' 앞두고 있는 듯하다. 지구시대의 지구 전체가 이처럼 파국적 상황에 놓이게 된 데는 물론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동할 것이나 그중 압도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지역, 종교, 인종, 이데올로기 등을 둘러싼 전쟁'이다. 현재 지구 전역은 지역, 종교, 인종, 이데올로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폭발 직전이다. 9·11 사건 이후 지역, 종교, 인종 등을 둘러싼 갈등은 갈등을 넘어 일종의 전쟁 상황으로 바뀐 지 오래며 거대한 폭발 혹은 전쟁을 암시하는 작은 폭발들은 이미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 버렸다.

www.kci.go.kr

이 또한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적없는 합목적성'에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신자유주의의 탓이라고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확대되면서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쓰레기가 되는 삶들', 그러니까 모더니티의 추방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여가고 있다.[1]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은 쉴새없이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 그러니까 노동력이 넘치는 곳을 찾아나선다. 아니면 더욱 값싼 노동력을 외국에서 유입하여 자본 자신이 있는 곳을 노동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든다. 여기에 인간이 하던 노동을 고도의 전산시스템과 인공지능들이 대체하면서 오늘날 지구 전역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없'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지구 곳곳은 얼마 안 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노동자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벌이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전역은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는 대신 노동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결하고 투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대결과 투쟁은 주로 종교, 민족, 인종,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전쟁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더불어 만국의 자본가는 단결하는 반면 만국의 노동자가 종교, 민족, 인종 등을 매개로 전쟁을 벌이는 전율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경로로만 신자유주의가 지역, 종교, 인종, 계급이라는 경계를 더욱 절대화된 환상체계로 귀환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이후 인간 모두는 점점 더 고독하고, 무기력하며, 권태로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신자유주의는 인간 주체를 점점 더 노골적인 순종하는 신체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인간 전체를 걸어 다니는 사물로 전락시킨 신자유주의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간 주체의 강력한 저항 혹은 반작용을 불러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징적 질서에 억눌려 더 이상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순종하는 신체들 거의 대부분이 실재에의 전도된 열망에 매혹된다. 이들은 죽음과도 같은 무기력, 고독, 권태에 시달린 나머지 아주 손쉽게 타나토스적 충동에 휩싸인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충동에 몸을 맡긴 순종하는 신체들은 자신들의 충동적인 행동들을 정당화시켜 줄 어떤 좌표라도 붙잡으려 한다. 최

1) 자본주의가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되는 삶' 혹은 모더니티의 추방자들을 양산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쓰레기가 되는 삶들-모더니티의 추방자들』, 새물결, 2008. 참조.

www.kci.go.kr

근 이러한 좌표로 속속 귀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대성이 해체했던 그것들, 그러니까 지역, 종교, 민족, 인종 같은 것들이다. 그 결과 지구 전역에는 모든 지역, 종교, 민족의 성원이 뒤섞인 상황에서 지역, 종교, 민족, 인종을 둘러싼 갈등 혹은 전쟁은 더욱 가속화되는 역설적이고 치명적인 상황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제 주변의 이웃들이 그냥 이웃이 아니라 이방인-이웃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훨씬 더 강화된 적대감에 들려 있어서 세계 전체가 상시적인 테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나 할까.

물론 이렇게 점점 육박하고 있는 파국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구 전역에서 이방인-이웃에 대한 관용과 사랑, 혹은 환대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파국의 징후는 여전하다. 그것은 많은 경우 이방인-이웃에 대한 사랑의 목소리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 목소리 안에 어떤 치명적 과잉과 결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그 목소리 안에 잠복된 어떤 과잉과 결여 때문에 실천으로 옮겨지지도 않고 또 실천으로 옮겨져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까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널이 통용되는 관용이란 이방인이 그 자신의 이방인됨을 포기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권력의지의 다른 표현이며 이방인들의 정당한 저항을 관용에 대한 배신으로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통치전략에 불과하다. 파국은 임박하고 있는데 그 파국에 대한 유일한 처방으로 제시된 방법이 오히려 그 파국을 더 치명적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종교, 인종, 이데올로기를 사이에 두고 이방인-이웃들끼리 일상적인 갈등을 겪기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세밀한 관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외국인 이주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그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역능을 행사하고 있다. 이토록 수많은 이방인-이웃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는 이방인-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한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지역, 종교, 인종, 민족을 둘러싸고 갈등은 상시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전역에 비추어 보자면 훨씬 덜 폭력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인-이웃과의 상대적인 평화는 우리가 우리 앞에 도래한 이방인 이웃을 환대하거나 그들에게 관용을 베

www.kci.go.kr

풀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고 해야 하리라. 한국 사회 역시 이방인-이웃에 대한 편견과 적대는 세계 어느 곳 못지않다. 사실 우리 앞에 도래한 이방인-이웃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응대는 오리엔탈리즘적인 편견과 적대감으로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에게 온 이방인-이웃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기계들이 아니다. 다른 곳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에 온 것은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나름 독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의 잠재적인 힘들을 배우러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온 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구실 삼아 이방인-이웃들을 단지 돈 버는 기계로 내려다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인 폭력은 구조적이고 제도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이방이-이웃에 대한 냉대와 적대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환대해야 할 이방인-이웃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우리 사회에 도래한 이방인-이웃 중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통념상 의무 형식으로 환대해야 할 이방인-이웃들이 있다. 탈북민들과 결혼이주민들이다. 탈북민들은 그간 우리가 환상해낸 상상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 이데올로기의 차이 혹은 냉혹한 국제질서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는 같은 민족이다. 결혼이주민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태어난 곳도 다르고 질서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나 이제 그/그녀들도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우리 사회는 이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이웃들을 돈 벌러 온 기계로 바라본다. 이방인-이웃들을 곧 기계로 바라보는 만큼 누가 이방인-이웃들에게 폭력을 가하던 그 죄지은 자는 큰 징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죄지은 자 스스로 큰 죄의식을 지니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와 있는 이방인-이웃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아감벤적 의미의 호모 사케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 지역, 종교, 인종, 민족 등을 둘러싼 갈등이 미미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방인-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환대해서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온 이방인-이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며 환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방인-이웃과 우리의 관계는 비록 현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예민한 촉수를 댄 작가들이 이미 경고하고 있듯 이방인-이웃과

www.kci.go.kr

우리의 관계는 조그마한 계기만 주어지면 폭발할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방인-이웃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적대적인 그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들의 한국(인)에 대한 울분과 분노 역시 어떤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런데다 이방인-이웃들에 대한 자기기만적인 인식 때문에 상황을 똑바로 볼래야 볼 수 없는 우리들은 이방인-이웃들의 정당한 요구를 '우리가 저 앞선 나라에 당한 것에 비하면 정말 잘 해주고 있는데 배은망덕하게 저항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 역시 머지않아 사소한 계기에 의해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지역, 종교, 인종, 민족을 둘러싼 일상적인 전쟁이 펼쳐질 위험이 농후하다. 이런 점에서 이방인-이웃에 대한 전방위적인 차별과 폭력 문제, 그리고 이방인-이웃들의 한국(인)에 대한 울분과 분노는 한국 사회가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또 다른 핵심적인 사회적 증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이웃 문제를 형상화한 최근의 한국소설들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앞질러 말하자면 최근의 한국소설 중 일부는 지구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핵심적인 화두로 등장한 이방인-이웃과의 공존과 상생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바 있거니와,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만한 진리의 빛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다시말해 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관용과 환대의 자세 때문에 더욱 더 이방인-이웃과의 적대의식이 악무한적으로 쌓여가는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이방인-이웃과 공존하고 이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해 간다. 그런 까닭에 최근 한국소설이 제시한 이방인-이웃과의 공존과 상생의 윤리를 항목화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단지 최근 한국소설의 한 경향성이나 소설적 성과를 되짚어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지구시대의 인류 전체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보편성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방인-이웃 문제를 형상화한 최근 한국소설에는 이처럼 지구시대의 증상을 치유할 수 있는 현재적 의미로 충만한 진리내용이 가로놓여 있거니와 이 진리내용을 맥락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임은 물론이다.

www.kci.go.kr

2. 국경을 여러 번 건넌 존재들[2] 혹은 지구시대의 일말의 희망

최근 한국문학이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이방인-이웃은 이른바 탈북민 혹은 새터민이다. 탈북민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나 둘 우리 곁으로 오더니 21세기 들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어느새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방인-이웃으로 자리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탈북민은 한국 사회에 있어 가장 징후적인 이방인-이웃이다. 탈북민은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거창한 이름 밑에서 오로지 순종하는 신체로 훈육된 존재들이기도 하고 또 그 순종하는 신체의 상태로부터 끊임없이 탈존하려는 자유인적 잠재성을 지닌 존재들이기도 하며,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전체주의적 특성이랄까 그 폭력성을 가장 외상적이고 외설적인 형식으로 체현하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또 그런가 하면 향후 남북통일이 될 경우 진정한 남북통일의 길을 미리 물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남북통일 후의 상황을 미리 살고 있는 '먼저 온 미래'[3] 혹은 '살아 있는 미래적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지구적 시각에서 보아도, 또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아도 대단히 상징적이고 징후적인 존재가 바로 탈북민이지만, 현재 그들이 놓여 있는 자리는 극한 상황에 가깝다. 탈북민들이 같은 언어와 역사를 지닌 하나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 기간 대치해왔던 적국이기도 한 남한을 선택한 데에는 무엇보다 남한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큰 역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슬며시 흘러들어간 남한에 대한 소문 혹은 정보 때문이건, 아니면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본능적으로 이끌린 것이건 간에, 남한에 가면 악몽같은 가난과 숨도 쉬기 힘든 부자유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이곳에 왔으리라는 것은 짐

2) 이 절의 제목은 탈북시인 최진이의 회고록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북하우스, 2005)에서 따왔다. 이글의 저자 최진이는 우선 혼자 탈북했다가 다시 입북,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나온다. 그 과정에서 두만강 국경을 세 번 건너야 했고, 책 제목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춰 정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다시 남한으로 왔으니 사실 최진이는 '국경을 네 번 건너' 남한에 온 '여자'이다.

3)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5면. 탈북민의 현재적 상황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 이 논문에 따르고 있으며, 그것 외에 탈북민을 이방인-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맥락화하는 데에도 이 논문에 빚진 바가 많다.

www.kci.go.kr

작하기 어렵지 않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그 기대 때문에 전쟁의 상황보다도 더 참혹한 이주의 과정을 거쳐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며,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비로소 생애 최고의 순간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에 부푼다. 그러나 현재 탈북민들의 삶은 그들이 북한을 떠나면서 품었을 기대나 이 땅에 첫발을 딛는 순간 꿈꾸었던 희망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것이다[4]. 그들은 '위장망명'이나 '돈을 위해 가족을 버린 비인간적인 존재'들이라는 편견에 시달리거나 남한 사람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세금 도둑 정도[5]로 인식된다. 물론 이곳에서 눈총 받지 않으며 사는 탈북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고유성(혹은 타자성)을 인정받아 이곳의 질서에 의미 있는 의문을 제기한 것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녀/그들의 역사철학과 그 역사철학에 의해 형성된 그녀/그들의 욕망을 포기할 때라야 이곳에서 환대받는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들을 타자성을 지닌 타자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타락한 질서에 이미 순종하는 신체가 되었을 때에만, 다시말해 그들의 모든 타자성을 양기하고 이곳의 존재들과 그야말로 동질화되었을 때만 수용한다. 그러니 국경을 두 번 넘는, 때로는 북에 있는 가족을 다시 데려오느라 국경을 네 번 넘는 모험을 감행하고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은 이곳에서 결코 행복이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 때로는 남한 사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동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허구적인 관용 앞에서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곱씹는 경우도 있다. 해서 많은 경우 탈북민들은 자신들을 연변인으로 위장하거나 아니면 남한을 버리고 또 다시 떠난다. 말하자면 탈북민에서 탈남인이 된다[6].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의 통계에 따

---

4) 탈북민들의 탈북과정과 여러 국경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수기 형식의 글 대부분이 이런 정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 2)에 언급한 최진이의 글뿐만 아니라 최금희, 『금희의 여행』(민들레, 2007) 역시 남한에서 경험하는 편견에 대한 고통을 여러 군데서 간접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5) 최금희의 수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 바, 이 구절을 통해 탈북민들이 남한인들의 탈북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텔레비전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밥을 먹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왜 온대? 여기도 굶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재네들 우리 세금 받잖아?"
왠지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몇 마디 해 주고 싶었지만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최금희, 앞의 책, 213면.)

www.kci.go.kr

르면 탈북민들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단연 독보적인 남한인들의 자살률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탈북민들의 이러한 현존 형식은,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증상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남북통일이 결국은 파국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문학이 오래 전부터 이 탈북민의 현존 형식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한국소설의 탈북민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 경향성을 보인다. 첫 번째 경향은 탈북민이 얼마나 악몽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재현하고 그 악몽같은 삶이 어디에서 기원하는가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먼저 강영숙의 『리나』가 있다. 『리나』는 알레고리 소설이다. 대부분의 알레고리 소설이 그러하듯, 모든 사물이나 풍경, 등장인물 모두가 모래먼지에 덮인 듯 불분명해서 구체적으로 이 소설이 어느 시공간을 그리고 있는지 획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리나』는 자본주의 질서 너머에서 건너온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다룬 소설로 읽어도 무방할 듯하다. 아니, 그렇게 읽어야만 이 소설은 더욱 밀도 높은 현실정합성을 지닌 소설이 된다. 『리나』에서 주인공 '리나'는 그간 자신이 살아왔던 곳을 떠나와서 그전과는 판이한 질서, 그러니까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조우한다. 생존 그 자체가 힘겨운 데다가 그 힘겨움을 이길 만한 존재감같은 것은 느끼지 못한 리나는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체제를 버리고 탈주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탈북한다. 그러나 리나가 조우한 현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다. 그곳에서 리나가 조우한 현실은 또 다른 악몽이다. 리나는 자신이 우선 극한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존재인 만큼 우선 그곳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인정받고 싶다. 체제도 역사도 다른 그래서 그들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세계에서 왔고, 또 다른 상징질서 속에서 형성한 지혜가 있는 만큼 그들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로 인정받고 싶고 환대받고 싶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리나를 환대하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적대한다. 리나가 가지고 있는 신분상의 약점을 악용하여 원래 리나가 있었던 곳에서도

6) 탈북민이 다시 탈남민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오원환, 앞의 논문 참조.

www.kci.go.kr

겪지 않았을 치명적인 상처들을 입힌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그 모든 것을 교환하는 자본주의는 끝내는 리나에게 노골적으로 상품이 될 것을 강요한다. 그것이 자신이 꿈꾸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르기에 거부하려 하지만 리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리나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다구니를 부리며 씩씩하게 산다. 하지만 리나는 원래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 이미 가족들이 가 있는 곳으로 또 다시 탈주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아마도 외설적이고 외상적으로 조우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경험한 후 신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도 역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래도 갈 곳이 있다는 희망(비록 이미 마음속에서는 접은 꿈이지만)이라도 있으니 이곳에서 살아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 또 한 번 절망을 맛보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리나는 그녀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곳, 남한 대신에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으면 기름이 지글거리는 양고기를 실컷 뜯어먹으며 살 수 있어서 늘 힘도 넘치고 아플 일도 없다고' 하는 '유목민의 나라'[7]로의 탈주한다. 『리나』는 이렇듯 작중화자 '리나'가 이방인을 환대하기는커녕 도구로 전락시켜 상품화하고야 마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남한에 오는 대신 또 다른 곳으로 탈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리나'가 굳이 국경을 한 번 더 건너 이곳에 오지 않고 저곳에 살았지만 『리나』에 그려진 탈북민들의 중국에서의 실존 형식 그것만으로도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암시받기에는 충분하다.

국경을 넘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외상적이고 외설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와 조우한 그/그녀들 중 그래서 더 큰 기대를 품고 한 번 더 국경을 넘어 남한에 온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다시말해 국경을 두 번 넘어 이곳에 온 탈북민들(혹은 새터민)들은 이곳으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처절한 배고픔의 고통은 물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진지하고도 깊은 관심을 보인 작품이 있으니 정도상의 『찔레꽃』이다. 『찔레꽃』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해 국경을 두 번 넘어 이곳에 온 충심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7)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 2006, 340면.

www.kci.go.kr

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한다.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사선을 넘어 이곳에 온 탈북민들의 실존 형식은 단지 강영숙의 『리나』에서 '리나'가 중국에서 겪었던 고통을 한 번 더 겪는 과정에 불과하다고.[8] 비록 지금은 국가와 체제를 달리하더라도 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 묶여 있었던 상상의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므로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여 줄 만도 하건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곳을 마다하고 굳이 이곳을 찾아왔으므로 그녀/그들의 고유성과 진정성을 인정해줄 만하건만, 탈북민을 대하는 이곳 사람들의 응대는 '리나'를 극한 상황 속으로 밀어 넣는 중국의 그들과 같다. 오히려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곳의 사람들이 중국인들보다 더 하다. 중국인들은 그녀/그들의 몸을 훼손하고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공포를 떠안기지만, 이곳의 존재들은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버티게 한 힘,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을 아주 간단하게 꺾어 버리기 때문이다.

> 빽빽한 콘돔의 느낌을 이겨내려고 이를 악물었다. 마음에도 없는 행위를 몸으로 겪어내는 동안 모멸감이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세상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수모를 견디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나는 모텔의 천장에 그려진 별자리를 보며 마음을 몸 밖으로 온전히 내보냈다. 야광으로 만들어진 별자리는 어둠 속에서 반딧불처럼 반짝였다. 휴대폰 속에서 울먹이던 엄마의 목소리가 별자리 속에서 유성처럼 쏟아져 내렸다.[9]

앞서 말했듯 『찔레꽃』의 주인공 '충심'은 인간답게 살고자 목숨을 걸고 두 번 국경을 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스럽지만 '충심에 가득 찬' 삶의 역정은 그녀가 꿈꾸었던 삶과 정반대의 그것으로 귀결된다. 인간답게 살고자 했으나 북한은 물론 남한도 그녀에게 그러한 삶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걷지 않을 길을 북녘에 두고 온 어머니 때문

8)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강영숙의 『리나』가 '리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고 중국 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탈주시킨 것은 독자들에게 '리나'가 이곳으로 왔을 때 중국 쪽에서의 그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반성적으로 묻고 그에 대해 독자 스스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하다.

9)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203면.

www.kci.go.kr

에 결국 선택하게 된다. 정말로 큰 용기와 결단 끝에 행해진 모험이나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은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고 것뿐이며, 상품으로 살자니 '마음을 몸 밖으로 온전히 내보'내야 한다. 『찔레꽃』에 따르면 탈북민이라는 이방인-이웃은 결코 우리 사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도 환대받지도 못하는 걸어다니는 사물 그 자체이다. 그것은 남한에 사는 현존재들 대부분이 탈북민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가하고도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어떤 반성도 하지 못하는 사물로 이미 전락해 있는 까닭이다. 『찔레꽃』은 남한의 현존재들은 이미 타인을 환대하고 서로의 상생을 꿈꿀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대신 이미-사물인 그들은 좀비와 같은 존재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인격체를 만나면 그를 또 다른 사물로 만드는 일뿐이다. 한마디로 『찔레꽃』은 두 번 국경을 넘은 존재인 충심의 전락 과정을 통해 인간 모두를 상품화시키고 그렇게 상품화된 인격을 자본주의적 교환체계 속으로 간단하게 밀어넣는 이곳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한편 그것에 순종하는 신체로 전락해버린 이곳 존재들의 타락한 삶을 충격적으로 현시한다. 그리고 '정말이지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10]는 춘심의 결심을 통해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닌 일, 그러니까 환금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순간을 한 순간이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강영숙의 『리나』와 정도상의 『찔레꽃』이 주로 국경을 여러 번 넘은 여자들의 전락과 결단의 서사를 통해 이방인-이웃끼리의 적대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세상을 넘어설 '일말의 희망', 그러니까 이방인-이웃끼리의 상생의 가능성을 탐색한 소설이라면, 최근 탈북민들을 다룬 소설들에는 탈북민들을 이방인-이웃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시킬 잠재적 주체로 설정한 소설들이 있어 주목된다.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와 황석영의 『바리데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 소설은 탈북민들을 호모사케르라는 가해를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현재적 관점과는 달리 탈북민들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조망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소설은 탈북민들을 불운하게도 동토에서 비극적으로 살아온, 그러니 이제는 우리와 동등한 삶을 살

10) 위의 책, 217면.

www.kci.go.kr

자격이 있는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가장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상징질서에서도 순종하는 신체이기를 거부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유인이자 탈북 이후에도 그 어떤 상징질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인식하에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질서로부터 탈주를 꿈꾸는 진정한 탈존적 존재로 위치시킨다.

우선 『로기완을 만났다』을 보자. 이 소설은 작중화자가 탈북민 로기완을 만나러 벨기에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타인의 고통을 같이 느끼지 못해 괴로워하던 작중화자는 어느날 우연히 '어머니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라는 탈북청년 로기완의 말에서 어떤 진리의 빛을 발견한다. 불우한 이웃의 사연을 더욱 불우한 다큐로 만들어 ARS를 통해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 작가인 작중화자는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축해놓은 독자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배려를 오히려 구속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그러다 부모 없이 반지하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것도 뺨에 커다란 혹을 달고 사는 윤주에게 전에 없는 깊은 동정과 연민을 느낀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고가 발생한다. 윤주가 보다 많은 후원금을 받도록 방송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는데 방송을 위해 수술 날짜를 늦춘 그 사이에 윤주의 종양이 악성으로 변한다. 이 사고 이후 '나'는 이전보다 더 지독한 독아주의자가 된다.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며 위로하는 윤주와도 거리를 두고 서로 조금씩 좋은 감정을 가져가던 PD '재이'에게서도 멀어져간다. 이 순간 '나'는 자신의 동일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듣게 된다. 바로 탈북 청년 로기완에 대한 이야기다. 죄책감 때문에 길을 잃은 '나'는 우연히 '어머니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로 압축되는 로기완의 좌절과 극복의 서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책감을 오히려 삶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로기완의 삶의 역정에 매료된다. 지금 이 상태처럼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는 로기완의 삶의 역정을 바디우식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이미 주어진 것'의 그 일상적 기입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그 무엇", 그러니까 '잉여적 부가물'이고, 이 잉여적 부가물은 '사건이 발생한 고유한 질서 속에서의 실질적 단절'을 가져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11]으로서의 사건 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는 작중화

www.kci.go.kr

자인 '나'는 이제 로기완을 좇아 진리의 과정을 밟는다. 우선 벨기에로 날아가 로기완의 삶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로기완은 한마디로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로기완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생존한다.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살아남았으니 그 죄책감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터, 그러나 그는 그 죄책감을 자기가 사는 것으로, 그것도 잘 사는 것으로 갚기로 한다. 그는 이국,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역시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지배하는 그 엄혹한 이국에서 살아남고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낸다. 로기완은 어머니가 준 희생과 선물을 이어받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돌려주며 타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마다 않는 삶을 터벅터벅 이어간다. 벨기에에 남겨진 그의 잔여물을 수집하고 로기완의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시대를 이끌 '일말의 희망'을 발견한다. 결국 로기완은 '나'에게 무책임과 비양심이 판치는 이 세상을, 누군가의 희생으로 태어나고 자랐으면서도 그 천사의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지 않는 이 세상을 넘어설 존재됨과 윤리성을 지닌 바로 그 존재,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원리가 된다. 이처럼 『로기완을 만났다』는 로기완이라는 탈북민을 이제까지 우리가 지녀왔던 상징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탈북민이라는 이방인-이웃을 자본주의라는 상징질서를 균열시킬 수 있는 계기로 표현하기는 황석영의 『바리데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분단이 초래한 비극적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작가의 작품답게 북한 사회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단연 돋보이는 『바리데기』는 역시 탈북민을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더 이상 북한에 머물 수 없어 탈북을 감행한 바리 가족은 그러나 북한 바깥으로 나오면서 처절한 경험을 한다.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감금하고 강간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타락한 자본주의 앞에 이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바리데기는 가족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된다. 바리의 삶 역시 개인에게 그 어떤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독재 정치에 의해서, 그리고 탈북해서는 인간을 오로지 교환가능한 사물로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11)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동문선, 2001, 54~55면.

www.kci.go.kr

나지만 그래도 그녀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녀가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가족들의 목소리와 염원을 외면할 수 없는 까닭이다. 결국 바리는 영국에 도착해 그곳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의해 가장 고통받는 이방인-이웃들 끼리의 공동체를 일구어낸다. 무가에서의 바리데기가 아버지의 병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겪는다면, 『바리데기』의 바리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인물로 되어 있다고 할까.

> 나는 문득 압둘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 할아버지, 세상을 구해낼 생명의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얻을 수 있다면……
> 그는 대답없이 나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다렸다.
> 며칠 동안 긴긴 꿈을 꾸었어요. 내가 생명수를 찾아헤매는 꿈을요.
> 압둘 할아버지는 내 손을 가만히 당겨쥐고는 쓰다듬으며 말했다.
> 희망을 버리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네가 바라는 생명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지독한 일을 겪을지라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12)

이처럼 바리는 스스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타인의 아픔을 읽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꿈의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거듭 행한다. 바리는 쉬지 않고 운다. '남을 위해', 그중에서도 특히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형성해놓은 지역, 인종, 민족 등을 둘러싼 전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결국 바리는 '남을 위한' 울음이라는 행위를 통해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을 같이 아파해주는 공동체를 이룩해낸다. 한마디로 『바리데기』는 교환가치가 세상을 지배해 모든 인간이 걸어다니는 상품으로 전락한 시대,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죽이고도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호모사케르로 전락한 이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원리로 '눈물의 윤리'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윤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에 가장 근접한 존재로 바리, 곧 탈북민을

12)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286면.

www.kci.go.kr

위치시킨다. 탈북민들만이 경험한 디아스포라적 경험과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보다 인간적이고 작은 공동체의 대한 염원이야말로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웃끼리 일상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이 타락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윤리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로기완을 만났다』와 『바리데기』는 탈북민이라는 존재를 기존의 우리 시각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전유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탈북민들을 단지 북한이라는 지옥이 견디기 힘들어 이곳에 살러 온 존재들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신 이들 작품은 탈북민들을 현재 지구의 상징질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이며 그 질문 끝에 기존의 상징질서 외의 또 다른 윤리와 질서를 제시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끝에 탈북민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한다. '탈북민들이란 이방인-이웃은 이미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고통을 겪었고 그 안에서 그들만이 내릴 수 있는 값진 결론을 얻어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이방인-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두 작품의 공통된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탈북민이라는 이방인-이웃을 먼저 환대하면서 결국은 이들을 환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두 작품은 작가는 탈북민이란 이러이러하다를 먼저 따지고 그래서 환대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린 끝에 탈북민이란 이방인-이웃을 환대하지는 않는다. 『로기완을 만났다』와 『바리데기』는 탈북민들을 무조건 신뢰하고 환대한다.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중에서도 이곳에 내내 머물렀던 우리에 비해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증오를 가졌고 그 끝에 더 많은 용서와 화해를 해왔던 존재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환대할 것을 따지고 환대하려 하면 영영 환대할 수 없다.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눈으로 보자면 사실 그들에겐 우리가 결코 환대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 이방인-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려면 이방인이므로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그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환대의 윤리이며, 이런 윤리를 가질 때에만 이방인-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환대의 과정은 마치 바디우가 제시한 진리의 과정과 유사하다. 바디우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진리의 길로 접어들

www.kci.go.kr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바꿀 어떤 사건과 조우하려면, 먼저 그 사건이 사건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 믿음 없이 우리는 사건을 만날 수 없다. 사건의 성격을 조밀조밀 따져 이것은 가치 있고 저것은 비본질적이고 하면 그 순간 내 삶 전체를 바꾸어놓을 만한 사건도 더 이상 사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바디우의 말처럼 일반적 존재가 사건을 만나 진리의 과정을 거친 후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결코 두 번 믿지 않을 것을 사랑하라'는 정언명령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항상 믿던 것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르면 사건은 그 존재에게 진리의 과정으로 다가오지 않고 대신 사건을 사건이 아닌 것으로 전락시키고 만다[13]. 그러므로 이방인-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결코 두 번은 믿을 수 없을 것같은 친밀하지 않은 이방인-이웃을 보다 더 환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로기완을 만났다』와 『바리데기』는 작품 내용은 물론 작품의 구성에서부터 이러한 환대의 윤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3. 반성과 모성의 시간 ; 무조건적인 환대에 이르는 두 길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급격하게 늘어난 이방인-이웃이 단지 탈북민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구시대와 자본주의적 합리성은 그야말로 대대적인 디아스포라의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도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유입되고 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과 노동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비록 그들이 도시의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하더라도. 아니 자본제적인 생산양식은 모더니티의 추방자들이 끊이지 않아야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본제적 생산양식은 집요하게 탈토지화 현상을 밀고나간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랜 기간 지속된 농촌인구 감소 때문에 한국 사회 전반은 더 이상 농촌에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바로 외국 노동자의 이입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최소한의 농촌 공동체를 유지할 여성들이 필요했고 이에 따

13) 바디우의 사건의 발생과 진리화 과정에 대해서는 바디우, 앞의 책 참조.

www.kci.go.kr

라 역시 대대적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유입된다.

그렇다면 탈북민 말고 이들 이방인-이웃은 과연 환대를 받고 있을까. 역시 대답은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극소수의 존재들이 환대를 받을 뿐 그 나머지 대다수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오만과 편견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이들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잔혹하고도 무시무시한 인식론적 폭력을 가하는가 하는 것은 한때 공공연했던 광고들만 보면 쉽게 드러난다.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나 신문지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율할 만한 광고들을 자주 목격한 바 있다. '베트남 신부 절대 도망 안갑니다.' '비용 000원에 장애인도 20대 신부 가능' '숫처녀 보장' 등등. 아! 얼마나 지독한 오리엔탈리즘인가? 뿐인가.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그야말로 거의 매일 외국노동자에 대한 과잉의 수탈을 목격한다. 불법체류를 빌미로 저임금을 강요하는가 하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공장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고발하는 등 비인간적인 고용 형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조차도 평범하게 다가올 정도이다.

> 한국에는 법, 없어요.
> 한국 사람 지켜주는 법만 있어요. 미국 사람, 불란서 사람, 영국 사람, 지켜주는 법 있어요. 그러나 네팔 사람, 스리랑카 사람, 필리핀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지켜주는 법 없어요. ……한국 사람들도 아주 옛날,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돈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만주나 중국이나 러시아로 떠돌며 그 나라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학대받고 그랬잖아요. 나 한국 역사, 배웠어요. 역사 배우고 한국 교포들 얘기 듣고,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지요.
> 아,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 심정 잘 알겠구나.
> 그렇지 않은가요, 누나? 우리 네팔 사람처럼 가난해봤고, 침략 받아봤고, 돈 벌러 팔려가 봤고.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 심정 잘 알 테니 뭐든지 이해해주겠구나,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구요. 그런데 핵바 회사 관리 부장, 말하는 거예요.
> 너희 같은, 종자가 다른 놈들 보면 무조건 화가 나. 패고 싶어.
> …… 그런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해요. 부자, 아니면 가난뱅이요. 세상엔 더 부자와 더 가난한 사람, 두 종류밖엔 없고, 네팔은 가난한 거지의

www.kci.go.kr

나라이니, 거지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14]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이방인이고 진정한 타자이다. 이들은 한국이 무언가 배울 것이 많아 보여서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깨우치기 위해 온 이방인들이다. 또한 이들은 데리다의 말을 빌자면, 그들 스스로의 독자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존재들이기에, 그 자체로 '문제를 가져오고, 질문을 하'는 존재들, 곧 '물음으로-된-존재의 물음 자체'[15]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 이방인-이웃이 제기하는 질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들이 배울 만한 어떤 잠재적인 가치나 지혜, 혹은 윤리를 지니고 있기나 한 것인가. 아니면 혹시 그들과 다른 어떤 것을 지닌 이방인의 사회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방인-이웃이 그 자체로서 던지는 질문에 진지하게 응답한다면, 이방인-이웃은 우리가 절대선으로 떠받드는 우리의 상징질서 전체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단순한 존재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진리의 과정이 될 수 있을 터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듣지 못한다. 그들의 존재됨 자체가 제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단순히 돈 벌러 온 거지 취급'을 한다. 그들은 우리가 제기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어를 익히는데, 한국인들은 그들은 단순한 사물, 그래서 마음껏 대해도 되는 물건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죄의식 없이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방인-이웃에 대해 가해지는 육체적이고도 정신적인 폭력 문제는 자못 심각한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근 이방인-이웃을 형상화한 작품들에는 이러한 현실, 그러니까 이방인-이웃에게 행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론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문제를 다룬 작품

14)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신문사, 2005, 84면.105면.

15) 이방인에 대한 데리다의 말을 좀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먼저 이방인이 제기한 질문, 이방인에게서 온 질문이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게 보낸, 이방인에게 제기한 질문이다. 이방인이란 우선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로부터 첫 질문을 받는 대상이기라도 하듯이. 마치 이방인이란 물음으로-된-존재, 물음으로-된-존재의 물음 자체, 물음-존재 또는 문제의 물음으로-된-존재이기라도 하듯이 말이다."(자크 데리다, 남수인 옮김,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57면.)

www.kci.go.kr

이 많다. 그중 김재영의 「코끼리」는 이러한 계보의 기원에 해당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코끼리」는 무엇보다 이방인-이웃을 우리의 잃어버린 과거이자 오래된 미래로 위치시킨다. 「코끼리」에 따르면 우리에게 도래한 이방인-이웃들은, 머지않은 과거에 우리가 타국에 가서 그랬듯이, 한국이라는 타국에 와서 돈을 버는 것은 물론 무언가를 배우려 하는 존재들이다.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킬 정신과 기술, 제도 같은 것을.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탓을 하는 이들이 바로 그 이방인-이웃이건만, 한국인들은 이들의 행위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손해보상이 무서워 이들을 가혹하게 쫓아낸다. 결국 한국 사회의 이방인-이웃들에 대한 일상적이고 제도적인 폭력 앞에서 이방인-이웃들도 변하기 시작한다.

> "누군가 돌을 던지거든 꽃을 던져주라고 했다."
> "싫어요. 난, 차라리 사람들을 갈겨버리고 말지. 이담에 팔뚝에 힘을 붙으면 절대 아버지처럼 공장 일이나 하진 않을 거야. 우리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때려눕히고 발로 차고……"
> "야크처럼 앞뒤 재지 않고 돌진하겠다는 거냐?"
> "야크가 어떻게 뛰는지 알게 뭐예요. 히말라야 얘기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16]

이방인-이웃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이 더욱 가혹해지자 이제 이방인-이웃들 사이에서도 한국 사회에 대한 증오가 생겨나고 복수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코끼리」는 이방인-이웃들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은 아니고 어떤 분기점에 있다고 본다. '돌을 던지거든 꽃을 던져주라'는 마음과 '우리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나쁜 놈들을 때려눕히고 발로 차고'자 하는 복수심 사이의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 하지만 지금처럼 이방인-이웃에 대한 이 일상적인 폭력이 거듭된다면 '돌을 던지거든 꽃을 던져주라'는 마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사회 전반도 어떤 결단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는 셈이다. '돌을 던지거든

16) 김재영, 「코끼리」, 『코끼리』(실천문학사, 2005), 15면.

www.kci.go.kr

꽃을 던져주라'는 이방인-이웃들에게 계속 돌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돌을 던져도 꽃으로 갚는' 그들에게 이제는 꽃을 줄 것인가 하는 갈림길, 그곳에 한국사회는 서 있다. 이 선택지에서 「코끼리」가 제시하는 길은 분명해 보인다. '돌을 던져도 꽃으로 갚는' 그들에게 이제 '꽃을 주자'는 것, 아니 앞으로 누구에게도 먼저 '꽃을 주는' 삶을 살자는 것.

이렇게 복수심을 불러올 정도로 이방인-이웃들에게 노골적이고 직접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차별에 대한 비판도 한국소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지만, 이방인-이웃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인식론적 폭력 또한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사회적 병리라고 진단하는 소설 역시 적지 않게 씌어지고 있다. 우선 천운영의 『잘 가라, 서커스』는 이러한 주제를 다룬 작품 중 단연 주목할 만하다. 특히 『잘 가라, 서커스』는 이방인-이웃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가해지는 적대와 학대의 문제를 날카롭게 그려낸다. 작중화자는 어린 시절 자기 때문에 불구가 된 형을 위해 연변의 처녀를 사서(?) 부부로 맺어준다. 비록 돈이 매개되었다 하나 연변에서 온 이 이방인-부인은 새로운 가족구성원들에게 진한 연대감을 느낀다. 어쩌면 이는 당연하지도 모른다. 연변의 조선족이란 오랫동안 우리와 같은 언어와 역사를 나누어가진, 우리 민족이 그려온 상상의 공동체의 같은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이방인-부인은 큰 기대를 품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이 관계는 곧 균열이 생긴다. 자신의 형수가 형에게 과하다는 생각한 작중화자가 형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러자 어린 시절부터의 정신적 상처가 재발한 형은 집요하게 자신의 부인을 의심하고 추궁하기 시작한다. 결국 이 부부는 파경을 맞고 아내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 돈을 좇아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웃(부인)에겐 영혼도 인간적 염원도 없다는 인식적 폭력이 결국 자신의 옛날 애인의 흔적이라도 찾을까 이곳에 온 기구한 운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서성란의 「파프리카」도 우리 사회가 이제 우리 곁에 선 이방인-이웃에게 얼마나 가혹한 인식론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밀도 있게 재현한 소설이다. 서성란의 「파프리카」에는 베트남 이방인-이웃(부인)이 등장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파프리카」에 등장한 이방인-이웃이 베트남인이라는 점이

www.kci.go.kr

다. 한국은 어떤 면에서 베트남인들에게 가해자이다. 어떤 명분으로 그곳에 갔건, 그곳에 가서 한국인들도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건, 한국인은 베트남에 가서 그곳 베트남 사람들과 전투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베트남인들을 살상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베트남인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죄책감이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반성일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이 그 나라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국과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요청하자 한국 사회가 베트남을 대하는 태도는 한국이 어떤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본과 수교를 요구하던 그때 일본인들이 보였던 그것과 같다.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기계들이라는 인식. 「파프리카」에 등장하는 베트남 여성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곳에 온다. 이 소설의 베트남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왔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큰 전환기가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기대를 낮추어 잡았건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지옥에 다름 아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녀의 그런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대한다. 때론 그녀를 따뜻하게 대할 때도 있는데 그 순간은 그녀가 농사짓고 애를 낳아줄 수 있는 기계 역할을 충실히 할 때이다. 한국인들에게 이미 한차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베트남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방인이지만 이미 그들과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지역공동체로부터 단 한 번도 자존심과 영혼을 지닌 동등한 인격체로 환대받지 못한다. 대신 한국보다 못 사는 곳에서 온 그래서 단지 돈을 좇아 이곳에 기계가 되기 위해 온 낮은 문화의 이방인으로 하대당하며, 끊임없이 효율성 높은 기계가 될 것을 강요당한다.

최근 이방인-이웃 문제를 다룬 한국소설은 이처럼 이방인-이웃들을 '물음-존재 또는 문제의 물음으로-된-존재'로 환대하기보다는 돈 벌러온 기계들로 폄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한편 그것이 초래할 파국적 상황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 이방인-이웃들을 더 이상 지금처럼 접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저쪽 서구처럼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제는 환대해야 한다는 것. 이방인-이웃들을

www.kci.go.kr

환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환대를 소리 높여 외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와 이방인-이웃과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진정으로 이방인-이웃을 환대하는 것은 가능하며, 어떤 윤리, 어떤 태도를 지닐 때 이방인-이웃들을 진정으로 환대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점일 터인데, 최근 이방인-이웃을 다룬 한국소설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행한 작품들이 있어 주목에 값한다.

먼저 방현석의 「존재의 형식」과 「랍스터를 먹는 시간」은 우리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있는 이방인-이웃인 베트남인과의 공존과 상생의 길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곳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좌절되자 충동처럼 베트남을 찾아간 작중화자들이 등장하는 방현석의 소설들은 무엇보다 베트남 사람들의 노골적인 한국인에 대한 증오와 그 증오의 근저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군인들이 행했던 잔혹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가로놓여 있음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작중화자들은 베트남(인)을 오로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 믿는 한국인들과 먹고 살 만하면서도 돈을 위해서라면 인격도 국격도 고려하지 않는 나라라고 한국에 대한 반감을 거두지 않는 베트남인들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작중화자들은 이 이방인-이웃 사이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진정한 사죄와 용서, 반성과 화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건을 따져가며 서로를 환대하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적대관계로 바뀐다는 것. 그러므로 각자가 가진 타자적 가치를 전제하고 무조건 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각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기성을 버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그래야만 타자를 환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대타자의 욕망만을 욕망하는 순종하는 신체에서 진정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랍스터를 먹는 시간」은 이를 랍스터의 생존 방법에 비유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 따르면 랍스터는 위험에 처할 경우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낸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도 산단다. 아니 그랬기 때문에 산다고 말한다.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믿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러니 자신을 이루는 핵심

www.kci.go.kr

적인 요소라고 믿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방인-이웃이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자기성에 매몰된 자기를 구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라는 것.

또 한편 이들 이방인-이웃에게서 한국 사회의 모순뿐만 아니라 지역, 인종, 종교 사이의 적대관계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넘어설 진리의 빛과 희망의 길을 찾아낸 작품도 있다. 박범신의 『나마스테』다. 박범신의 『나마스테』는 네팔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의 사랑을 그린 소설이다. 작중화자 신우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일어난 소위 흑인폭동 사건으로 동생을 잃은 경험이 있는, 그래서 이방인-이웃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경계심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 충격 때문에 고국에 돌아와서도 이방인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신우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네팔 남성 카밀과 조우한다. 신우는 이 이방인-이웃에 대한 경계를 좀처럼 늦추지 않으나 결국 오로지 타인만을 배려하며 사는 카밀의 이타성에 감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신우는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며 사는 카밀이 고난에 빠지자 아주 견고하게 지니고 있던 자기성을 버리고 카밀의 그 이타성에 자신을 내맡기기로 한다.

> 마치 다디단 사탕을 받아먹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고 내가 입속에 넣어주는 약을 받아먹었다.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물수건으로 그의 숱 많은 눈썹과 오똑한 청동빛 코와 발그레한 입술을 닦아주었다. 입맛을 다시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나도 몰래 브래지어 호크를 열고 젖을 꺼내 물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 그 순간의 나는, 설령 그에게 젖을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다. 아주 오래전, 억겁을 흘러가는 시간이 어느 골에서, 늙은 암소와 같은 내가 어린 그에게 한가로이 젖을 물리고 있는 정경이 밑도 끝도 없이 떠올랐다가 꺼졌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잠자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나는 늙은 암소가 되고 싶었다.[17]

카밀이라는 이방인-이웃의 이타성 덕분에 신우는 사람에 대한 증오 때문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처받은 영혼에서 아픈 존재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젖을 물리는 '늙은 암소'와 같은 대지적 모성을 지닌 존재자로 거듭난다. 이 거

17) 박범신, 앞의 책, 68면.

www.kci.go.kr

듭남을 통하여 비로소 신우는 또 다른 누군가를, 그것이 비록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준 이방인-남자라고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신우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카밀과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낸다. 신우는 네팔인들 특유의 그 이타적인 세계관을 자기화하고 카밀은 신우의 세계 전체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현실감각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합류적 사랑을, 진정으로 기존의 질서와 구분되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구성해낸다. 물론 이 합류적 사랑의 공동체는 이방인-이웃을 전방위적으로 차별하는 부당한 상징질서에 분신으로 맞선 카밀의 죽음과 그 불꽃을 끝내 받아 안으려다 오랜 식물인간 상태로 앓다가 죽어간 신우의 죽음으로 곧 와해되고 만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으로 뿌려놓은 씨앗은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전혀 이질적인 이방인-이웃 끼리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로 암시되고 있거니와, 바로 이 점에 『나마스테』가 말하고자 하는 중핵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이웃 끼리의 새로운 연대가 이루어질 때 인류 전체는 비로소 자본주의적 탐욕으로부터 탈존해서 진정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다시말해 이방인-이웃 서로가 대지적 모성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감싸안을 때 인류 전체가 현재의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자기동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해방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4. 이방인-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와 그 의미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소설이 있다. 『국가의 사생활』은 소위 '통일대박'의 논리에 의해,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문화를 지양하여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되면서 남북한의 경계가 무너진 이후의 한반도를 무대로 하는 소설이다. 한마디로 현재적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통일 시나리오에 기댄 가상미래소설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국가의 사생활』이 그려낸 미래상은 뜻밖에도 암울하다. 암울한 정도가 아니라 처참하다. 『국가의 사생활』이 가정하고 있는 미래상은 이렇다. 신자유주의에 의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탈북민과 같은 이방인-이웃이 넘쳐날 것이다. 이방인-이웃을

www.kci.go.kr

단지 돈 버는 기계로 아는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최저임금만을 지불한 채 악착같이 학대할 것이고 그나마 일자리를 잡지 못한 존재들은 자본주의의 주변부로, 게토를 간단하게 떠밀어버릴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회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 분명한 데도 그 어떤 추모도 애도도 받지 못하는 호모사케르들로 전락할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복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자 통일된 한반도는 피가 거듭거듭 피를 부르는 악무한적인 복수의 무대가 된다는 것. 이상이 『국가의 사생활』이 예견하는 미래의 한국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최민우의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하라」는 연작 소설이 있다. 한국적인 것에 어떤 기대를 품고 왔으나 한국인들의 거듭되는 차별과 폭력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이방인-이웃들이 테러를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역시 미래가상소설이다. 물론 대단히 희극적이고 희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국가의 사생활』처럼 직접적인 공포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는 그 때문에 더욱 현재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전율적으로 다가온다. 소설이니까 이렇게 낄낄댈 수 있지만 정작 이런 테러가 발생한다면 과연 웃을 수 있을까 하는 묘한 아이러니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가의 사생활』과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하라」 연작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방인-이웃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이방인-이웃 문제를 형상화한 소설중 이방인-이웃을 차별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소설을 넘어 이방인-이웃을 차별했을 때 발생할 파국적 상황에 대한 경고를 담은 소설이 더 빈번하게 씌어지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주의를 요한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웃들에 대한 폄훼와 멸시가 그들의 복수심을 불러올 만큼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겠기 때문이다. 이 경고가 그리 과장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 전반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 가까이에 서 있을 이방인-이웃과의 공존과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이방인-이웃에 대한 배려는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져 다행스럽다 싶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역설적이게 이방인-이웃들과의 갈등이 더욱 증폭된다는 점 또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방인-이웃에 대한 사이비 환대는 이방인-이웃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농후하다. 그것은 곧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주는 데 만족

www.kci.go.kr

하지 않다니!' 하는 의구심과 '환대해준다더니 겨우 이 정도야. 게다가 내가 가진 의미 있는 가치를 모두 포기해야 나를 인정해준다니!'하는 반감을 낳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적대의 악순환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이방인-이웃을 환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라면 데리다와 지젝이 이미 경청할 만한 말을 해놓은 것이 있다. 이들은 이방인-이웃을 환대하는 진정한 방법은 조건을 붙인 환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을 사랑하고 환대해서는 안되고 의무형식으로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조건을 붙여 그들을 환대하면 그들이 우리의 동일성의 회로 안에 편입하면 환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타자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환대할 수 없게 된다. 이방인이 이방인인 것은 그들이 우리와 같아질 수 없는 타자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이방인만큼 우리와 같아지기를 바라면 그 꿈은 실현불가능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적대성을 확인하는 치명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즉 환대하고자 하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적대관계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의무의 순수형식이라는 차원에서 환대하면, 그러니까 의무로써 이방인-이웃을 무조건 사랑하고 환대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정언명령에는 의무로써 이방인(-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면 자기성을 버리고 보다 고차의 자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세계, '나'와 다른 보편성의 담지자와 공동의 신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런 몸 섞음 속에서 나의 개체성과 동일성, 그것의 척도가 와해되어 새로운 공동 신체의 척도를 발명해야 하는 절대적 예외상태의 체험"[18]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방인을 무조건 환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데리다의 말처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자신의 장소와 권력의 포로, 자신의 자기성(ipséité)의 포로, 자신의 주관성(그의 주관성은 인질이다)의 포로'라고 한다면 '이방인은 주인을 구하고 주인의 권력을 해방하는 것'[19]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도래한 자를 무

18) 박정수, 「<이웃>, 친구이자 괴물인 이웃, 그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수유너머 weekly』, 2010.8.1.

19) 자크 데리다, 앞의 책, 134면.

www.kci.go.kr

조건 환대하는 것은 자신의 자기성으로 벗어나는 일이며 권력의 포로가 된 주체로부터 해방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방인-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환대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존의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공동신체의 척도를 발명해야 하는 절대적 예외상태의 체험'을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우리는 우리의 규율이나 동일성에 고박되어 누군가 전쟁을 벌이는 대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차의 연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이방인-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무조건 환대하는 것은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이방인들끼리의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윤리적 좌표이다. 이 말이 지나치다면, 이방인-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무조건 환대하는 것은 오늘날 지구시대에 임박하고 있는 파국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최근 이방인-이웃을 다룬 한국소설이 일궈낸 성취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들 소설은 이방인-가족일 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방인이지도 않은 이방인-이웃마저도 차별하고 하대하고 폄훼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적대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한 삶인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거니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이방인-이웃을 환대해야 하는 역사철학적 맥락과 그 방법을 밀도 있게 제시한다. 조건 없이 이방인-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럴 때에만 이방인-이웃을 진정으로 대화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나의 좁고 무기력한 자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사건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의 왜곡된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의해 구축된(혹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넘어서는데 너무나 무력한) 낡은 공동체를 해체하고 그야말로 이방인-이웃끼리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역사적 전기가 되리라는 것.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라 복잡한 이야기같지만 결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간단한 결론이다. 모든 이방인-이웃을 지역, 종교, 민족 등이라는 경계로 갈라놓고 적대하게 하는 이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강영숙, 정도상, 조해진, 황석영, 김재영, 천운영, 서성란, 방현석, 박범신 등의 소설이 이방인-이웃끼리 환대할 수 있는 길을, 그를 통해 임박한 파국을 막아세울 수 있는 희망의 원리를 찾아냈다는 것. 그러므로 앞으로 더 많은 조해진, 황석영, 방현석, 박범신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 2006.

김재영,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5.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출판사, 2005.

서성란, 『파프리카』, 화남출판사, 2009.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2011.

천운영, 『잘가라, 서커스』, 문학동네, 2005.

최진이,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 북하우스, 2005.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2. 논저

박정근, 「다이아스포라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바리데기적 비젼」, 『한민족문화연구』 31집, 2009.

박정수, 「<이웃>, 친구이자 괴물인 이웃, 그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수유너머 weekly』, 2010.8.1.

송명희, 「다문화소설에 재현된 베트남 여성;서성란의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1집, 2012.

슬라보예 지젝 외, 정혁현 옮김, 『이웃』, 도서출판 b, 2010.

알랭 바디우, 이종영 옮김, 『윤리학』, 동문선, 2001.

양진오,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분단의 상상력」, 『우리말글』 64집, 2015.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이미림, 「유동하는 시대의 이방인들, 이주자와 여행자」, 『한국문학논총』 65집, 2013.

www.kci.go.kr

자크 데리다, 남수인 옮김,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 자음과모음, 2007.
허 정, 「타인의 고통과 증상과의 동일시」, 『코기토』 76집, 2014.
M. Bermann,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Penguin Book, 1982.

www.kci.go.kr

【국문초록】

바야흐로 지구시대다. 이와 더불어 한국도 다문화시대 혹은 다국적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이에 맞춰 한국 사회에도 여러 새로운 이방인-이웃이 속속 도래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품고 한국 사회에 이주한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그러나 환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적대감과 오리엔탈리즘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러한 적대의식은 이방인-이웃들에 대한 인식론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방인-이웃에 대한 전방위적인 차별과 폭력 문제는 한국 사회의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또 다른 핵심적인 사회적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이방인-이웃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증상으로 자리하면서 최근 한국문학 역시 이방인-이웃에 대한 차별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구시대와 더불어 속속 우리 곁에 도래하고 있는 이방인-이웃 중 최근의 한국문학이 특히 주목하는 이방인-이웃은 탈북민과 동남아의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다. 이 두 이방인-이웃은 모두 한국 사회를 선망하고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옮겨온 이들이나 정작 한국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비인간적인 적대와 편견에 시달리는 존재들인 까닭이다. 한국문학의 이 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보인다. 첫 번째 경향은 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재현하고 그 편견이 어디에서 기원하는가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찔레꽃』(정도상), 『리나』(강영숙), 『파프리카』(서성란)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한국 사회의 이방인-이웃에 대한 적대감이 모든 인간을 걸어다니는 교환가치로 인식하는 물신화된 가치관과 한국인의 의식에 잠복된 오리엔탈리즘적 오만과 편견에 뿌리가 닿아 있음을 날카롭게 밝혀낸다. 또 하나의 방향은 이러한 부조리한 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실재의 윤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작품들인데, 『바리데기』(황석영), 『나마스테』(박범신)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작품은 환대의 윤리와 모성의 회복을 그 실재적 윤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제어: 지구시대, 이방인-이웃, 물신화, 오리엔탈리즘, 환대, 모성의 시간, 실재의 윤리, 『찔레꽃』, 『바리데기』, 『나마스테』

www.kci.go.kr

【Abstracts】

How can we love foreign-neighbors?

Ryoo Bo-sun

We are in the midst of a global era. Korea, too, has entered a multicultural and multinational age, with several new foreign-neighbors appearing in Korean society today. However, the attitude of Koreans toward these foreigners, who have immigrated with longing and expectation for Korea, is far from hospitable. The Korean people's hostility and orientalistic prejudice are manifested as epistemological and structural violence aimed at these foreign-neighbors.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imed at stranger-neighbors has become a core issue in Korean society today and Korean literature, too, has begun to show interest in this problem. The stranger-neighbors who have come into the spotlight in Korean literature are North Korean defectors, and migrant workers and wives from Southeast Asia. These two groups of people overcame all sorts of tribulations to come to Korea because they aspired for a Korean dream but experienced extremely inhuman and hostile prejudice after arriving here. Korean literature shows interest in these groups in two ways. The first focuses on showing how violent the prejudice toward these groups is and on discovering the source of this prejudice. Jeong Do-sang's Wild Rose, Kang Young-sook's Rina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at expose the fetishistic values that rate the

www.kci.go.kr

exchangeable value of humans and the orientalistic pride and prejudice latent in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The second way actively explores ethics of the real that can overcome such irrational prejudices. Hwang Sok-yong's Princess Bari and Park Bum-shin'sNamaste suggest the ethics of hospitality and the recovery of motherhood as ways of overcoming prejudices.

Key words: global age, foreign-neighbors, fetishizing, Orientalism, hospitality, time of motherhood, ethics of the real, Wild Rose, Princess Bari, Namaste

이 논문은 2015년 1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8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8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